

새누리당은 미치도록 일하고 싶습니다

제발 싸우지 말라는 국민 여러분의 뜻을 잘 알고 있습니다. 그러나 지켜만 볼 수 없었습니다.
정세균 의원의 의회주의 파괴와 거대야당^(171석)의 횡포를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!

야당의 김재수 장관 해임사유는 모두 거짓말입니다

- 시중금리 8%이던 2001년 1.4%의 금리로 대출을 받았다는 주장은?
장기고객 우대로 8% 금리보다 1.4% 낮은 6.6%로 대출을 받은 것입니다.
- 10년 전 9억 상당의 집에 1억 9천 전세로 살았다는 주장은?
이전 세입자도 1억 8천에 살았고, 근저당 6억 8천이 있어 전세금을 더 올릴 수 없었습니다.
- 친어머니를 돌보지 않았다는 주장은?
8살때 부모가 이혼했지만 지금까지도 정성껏 모시고 있습니다.
가슴아픈 가정사를 정쟁에 악용해서는 안됩니다.

※이 같은 사실은 인사청문회 당시 야당 국회의원도 인정했습니다.

“세월호(특위 기간연장) · 어버이연합(청문회) 하나는 내놔야지... **맨입**으로 안돼!”

— 정세균 본회의장 발언

의사일정 협의 없이 의회민주주의를 파괴한 **‘맨입’ 정세균 의원**
국회의장에서 즉각 물러나야 합니다!

- 국정을 마비시키기 위한 정략임을 정세균 의원 스스로 자인했습니다.
- 국회의장이 국회법과 절차도 깡그리 무시하고 ‘날치기’를 했습니다.
- 임명된지 15일 만에 장관을 해임시키려는 사례는 헌정사상 처음있는 일로,
‘국정 발목잡기’의 결정판입니다.

새누리당이 **‘민주주의’**와 **‘국민행복’**을 지켜내겠습니다.

국민안전·국가안보·민생·경제 새누리당